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714-530-1367) 로 알려주세요.

종교



집착해서 무얼 얻는가?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 OC장로협의회

오렌지카운티(OC)장로협의회(회장 황치훈)의 신임 회장 및 이사장 이·취임식이 지난 11일 홀러튼 장로교회(담임목사 황인철, 511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신임 회장과 이사장으로 황치훈, 김생수 장로가 각각 취임했으며 강신욱 전임 회장과 전 홍 전임 이사장이 각각 이임했다.

황치훈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됐던 회장 이·취임식을 열게 돼 기쁘다.”면서 “OC장로협의회가 장로의 본이 되는 장로님들이 모인 장로 협의회가 되기를 소원한다. 지역사회봉사와 구제 활동 및 선교 활동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저와 모든 임원들이 남은 임기 동안 여러 장로님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 이라고 말했다.

OC 장로협의회는 2014년 장로의 자질 향상과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교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립됐다. 현재 5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며 사무실은 905 S Euclid St. #108, Fullerton, CA 92832에 있다.

이단 대책 세미나 주안에교회

주안에교회(담임목사 최혁,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 6801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1)가 지난 7일과 14일, 미주기독교이단대책연구회 회장 한선희 목사를 초청해 ‘이단의 이해와 신천지’ 라는 주제로 화상 이단 대책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한선희 목사는 이단의 정의와 계보를 비롯해 특별히 미주 지역 한인 교회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신천지의 교리와 전도방법 등을 소개했다.

주안에교회의 이단 대책 세미나는 이달 21일(수)과 28일(수) 오후 7시 30분, 화상 앱 ‘줌(ZOOM)’ 을 통해 또 열린다.

▶ 문의: (818) 363-5887
iccc.office1@gmail.com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집착에 얽매이게 됩니다. 어떤 이는 집착하는 자신을 경계하면서도 순간순간 그 경계심을 놓치며 집착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 뜻대로 따라주길 바라는데, 이것도 큰 집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집착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집착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새겨보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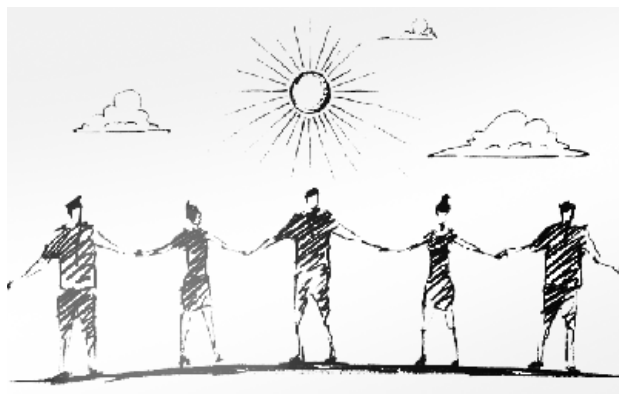
집착하게 되면 결국 자기 마음의 골만 깊어집니다. 그래서 선지식들은 집착하는 그 마음을 놓아버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착이 깊어지면 병이 됩니다. 상대가 따라주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해서 원망하면 집착을 벗을 수 없습니다. 이유없이, 조건없이 이해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더 좋은 방법은 내가 먼저 이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나한테 안 맞아도 양보할 줄 알아야 화합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죄 가운데 가장 나쁜 죄가 화합해서 잘사는 대중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욕심없이 사람을 대해야 하는데, 욕심을 갖고 대하니 제대로 안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참음은 대가없는 참음이 되어 합니다. 크기라는 말은 자기 마음을 스스로 조정할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화를 식이고 표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설혹 대가보다도 털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복을 저축하는 것이니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복은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업을 지으면 내일 그 결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인(因)을 짓지 않고 어떻게 좋은 과(果)를 바라겠습니까? 좋은 인을 짓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과 행동을 착하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남을 원망하는 마음은 자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데 세상에 벌어진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내가 있음으로 해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모두가 자기가 지은 업에 의한 것이니, 좋고 나쁨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 업으로 여기고 그 업을 녹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전부 남의 힘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늘, 땅, 물, 불, 공기의 힘으로 살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나를 살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니, 그 은혜가 막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마움을 잘 모릅니다.

사람 인(人)자는 서로 더불어 의지하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것이 사람인데 혼자만 잘 살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 광활한 천지 속에 나 혼자 있다고 해봐야 살 수 없습니다. 이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보면 고맙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에게 고마운 생각을 갖는다면 불평할 게 없지요.

내 생각과 행동이 남에게 어떤 피해가 가는가를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법당에서 법문을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였다가 법문이 끝나고 공양간에 가면 딴 행동을 합니다. 불과 몇 분도 안돼서 법문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던 것조차 잊어버립니다. 법문을 왜 들습니까?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왜 들으려 합니까? 법문이 너무 흔합니다. 어려운 속에서도 법문을 들으려는 마음이 일어나야 진짜 법문이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좋은 말을 해준다고 해서 법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이 듣는대로 따르려고 노력해야 법문인 것입니다.

사경을 왜 합니까? 사경을 하면 공덕이 되고 공부가 된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경을 하면서 온갖 욕심이 머리 속에 꼭 차 있으면 공덕이 되고 공부가 되겠습니까?

법문이 되고 안 되고는 말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도원 스님-

좋은신문 알찬신문 ‘타운뉴스’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개인의 작은 권리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기사와 한인들의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싣고 격조높은 기사와 광고만을 게재하는 ‘타운뉴스’와 함께 신문을 만들어 나갈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광고영업직 0명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E-mail: info@townnewsusa.com

14311 Valley View Ave. #202, Santa Fe Springs, CA 90670

